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기택(배숙자), 김종진(한안나), 김지한(유소정), 김춘화, 문영원(이명희), 박권제(송명숙), 박순웅(이승예), 방석대(차옥자), 서진화(최봉순), 석형기(이희순B), 심혜윤, 이상현, 이종문, 이한웅(김순옥), 이한철(박희영), 이희재, 임영자, 정옥순, 정은전, 조옥자, 최기훈(정계숙). (총21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형국(이오순), 문영원(이명희), 박권제(송명숙), 박정현, 윤영준, 윤정호(유옥자), 윤혜전, 이순애, 이종문, 이한철(박희영), 임영자, 정옥순, 채명업, 최기훈(정계숙), 최상걸(이미향), 최성현(윤정자), 황성연(홍금옥), 베드로남전도회.(총19명)

☞ **감사헌금**
강영성(신화순), 김병울(이영숙), 김정연B, 김정자, 김현구(서재희), 김희규, 박부웅(최귀남), 박영애, 박종삼(이명원), 송순량, 심순옥, 이강우, 이미영, 이소연, 이인숙, 이춘호, 이춘휘, 전순봉, 전영선, 정영삼, 채만기, 채명업, 최순재, 현복자, 권사화, 무명.(총26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래, 김민성, 김민혁,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홍은민, 홍준민, 황영옥, 무명.(총40명)

☞ **월정헌금**

최순재.(총1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25주 : 열왕기하 11장 13절 - 14장 29절				
주 일	열왕기하 11장 13 - 21절			
월요일	열왕기하 12장 1 - 8절	목요일	열왕기하 13장 14 - 25절	
화요일	열왕기하 12장 9 - 21절	금요일	열왕기하 14장 1 - 16절	
수요일	열왕기하 13장 1 - 13절	토요일	열왕기하 14장 17 - 29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준 방석대 윤병호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강도사	김성종			
	전도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호산나 : 김안나 엔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신숙 A X국: 김해월 A X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흥기		태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6. 21 주일 예배 설교

바울의 신비한 영적 체험

설교: 이진우 목사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지금까지 사도바울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을 이야기 했습니다. 11장에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수고를 넘치도록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그는 14년이나 숨겨왔습니다. 14년을 숨겨온 사실을 이제 마치 못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그가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고 신비한 체험 사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1. 사도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유대주의자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 인해 사도적 권위의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무너지면 주의 복음을 파수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적 옹호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 부득불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환상과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에게는 어리석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 자랑합니다. 당시의 유대주의 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자신들이 받은 추천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러한 추천서가 없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지적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보다는 이처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더 의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으로부터 존경받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리시라 확신하며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을 들어 보면 대부분 아무런 의미 없는 자신의 자랑일 때가 많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환상과 계시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 중에 본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가운데 서지 못하면 사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게 됩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환상을 보아도 바울처럼 교회에는 덕이 되고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는 스스로 교만케 하는 환상이 아니라 겸손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불을 붙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바울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과 같이 바로 분열하며 침묵하고 기도하여 교회와 성도에게는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3.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갔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하늘 곧 이 땅의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 곧 우주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와 몸을 떠난 성도들이 있는 낙원을 상징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둘째 하늘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지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사도바울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14년이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영광과 고난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기 위해 주신 “가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천국, 곧 낙원에서만 이야기되는 비밀일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슴속에는 낙원에서 주님을 보였던 사실이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이며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고통이나 위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14년 전이라고 언급함으로 그 체험의 실재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체험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침묵하며 기도하고 더욱 말씀에 굳건히 서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역사, 자신을 더욱 믿음으로 유익하게 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바로 분별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1 - 26

201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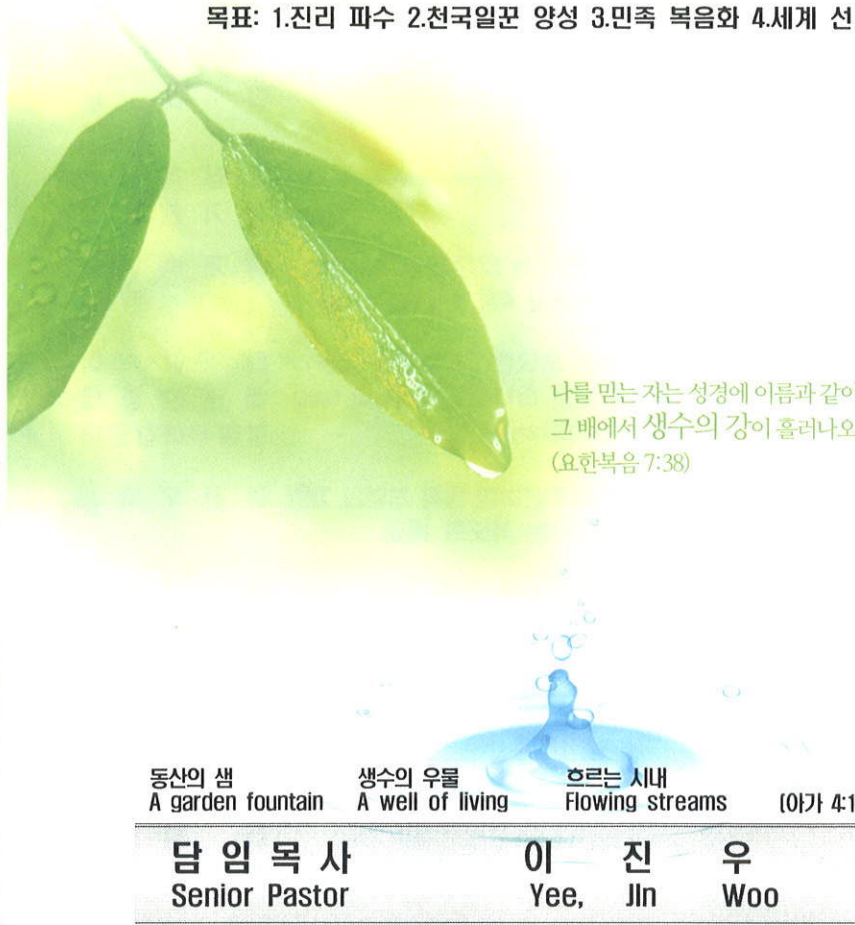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3)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2부] 오전 10시
[3부] 오전 11시 30분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14장 다 같 이
(Prais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김 성 욱 집 사
(Prayer) (3부) 최 기 훈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고린도후서 12장 5-6절[신약 P.299]
(Scripture) [2부] 골로새서 4장 1-6절[신약 P.327]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 200장] 다 같 이
(Anthem) [2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Don Besig] 에 덴 찬 양 대
[3부] 그 사랑[윤학준]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바울의 신비한 영적 체험의 자랑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1,3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다 같 이
(Praise) [2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베드로남전도회 회장 윤 병 호 장 로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68편 35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헌 신 결 의 바울남전도회 부회장 최 성 현 집 사

찬 양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같 이

기 도 바울남전도회 회장 최 상 결 집 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21장 1-11절[신약 P.34] 요한남전도회 회장 조 성 호 집 사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이것이 진짜 헌신이다 유 혜 식 목 사

예 물 봉 헌 기도: 베드로남전도회 부회장 윤정호 장로 다 같 이

특 송 남 전 도 회 임 원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 같 이

축 도 유 혜 식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 주: 민옥희 권사] 강 은 미 권 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3장 25절[신약 P.243] 인 도 자

설 교 은혜언약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 이 진 우 목 사
[로마서 3:25, 히브리서 9:15]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3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9:30 유초등부실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00 본당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델나루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소 랑 부 (경로대학)	토요일 오전 10:30 제1교육관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전도팀모임	목요일 오후 2:00 식당

“남전도회 연합 헌신예배”

교회소식

◎ 광고

- [남전도회 연합 헌신예배]
오늘(28일) 찬양예배는 “남전도회 연합 헌신예배”입니다. 강사는 푸른교회를 시우하 유혜식목사님 입니다.
- [백추감사주일]
다음 주일(7/5일)은 “백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15년 상반기 동안 배퐁어 주신 은 감사하며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7/3일) 금요기도회는 “예배위원회” 주관입니다.
- [교사강습회]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한 교사강습회가 오늘(28일), 다음 주일(7/5일) 찬양예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교사들은 필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니엘새벽기도회/자녀를 위한 새벽기도]
7월 1일(수)-21일(화)까지 “3/4분기 다니엘 기도회”와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를 참 많이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설립주일 헌금]
오늘까지 작성한 금액을 헌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사회 기도회]
권사회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각부서 여름행사에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름행사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차량봉사, 찬양/율동, 기타)
- [여름행사 지원]
여름행사(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티셔츠 구입헌금을 하오니 초원별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6/7월 행사]
6/28일(주일) 남전도회연합 헌신예배/교사강습회
7/1-21일 다니엘 새벽기도회/자녀를 위한 새벽기도
5일(주일) 백추감사주일/교사강습회
12일(주일)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
30-8/1일 유초등부 성경학교/중고등부 수련회
31-8/1일 영아유치부 성경학교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교육위원회(오후2시/로델나루) * 교사강습회(찬양예배후/본당) * 지취자/반주자 모임(찬양예배후/찬양대연습실)	* 교사강습회(찬양예배후/본당)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
이번주	현원제 청년	현원지 청년	이기자 권사/강은미 권사	정옥순 권사	소망2 고척9 고척10	영아유
	* 떡은 임형문 집사, 박금옥 권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故 박두수 성도 장례)					
다음주	이승애 권사	박순웅 집사	송부현 집사, 김영진 권사	안금자 권사	소망3 고척11 고척12	유초등

◎ 교우소식

* 박광석 * 김메미 청년(김규찬 집사, 최효자 권사(소망2 고척9) 장녀) 결혼
⇒ 7월 4일(토) 오후 1시 40분, (신도림 웨스턴베니바스 7층 아스타홀, 02-2111-7000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
7월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 회	기 도	기
1주(7일)	장윤주 집사	김병을 장로	최효자 권사	최기훈 장로	황성연 집사	민옥희
2주(14일)	유현호 집사	강영성 장로	이경자 권사	드보라 여전도회 헌신예배	황영록	
3주(21일)	홍정훈 집사	윤정호 장로	오영순 권사	윤정호 장로	오택현 집사	이민숙
4주(28일)	황성연 집사	배경철 장로	이영숙 권사	배경철 장로	방원식 집사	김순옥
예배안내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